

복식유물의 보존을 위한 제안  
- 밀창군 조복의 복제를 중심으로 -

채옥자 · 박지선\* · 박성실\*\*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용인대학교, \*\*단국대학교

Proposition for Conservation of Traditional Costumes  
- Mainly on the replication of Milchanggun's Jobok -

Ok-Ja Chae, \*Chi-Sun Park and \*\*Sung-Sil Park

*Nansa Traditional Costume Heritage Institute*

*\*Yongin University*

*\*\* DanKook University*

**Abstract**

We proposed that the replicas be made as an alternative to achieve such reciprocal goals as the saf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ostume relics and socio-educational realizations through exhibitions, etc.,

A replication was categorized for its purpose into a restoral replication : a work based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color and shapes as they were originally made and a current state replication : a production based on a minute record of the relics as they are excavated Then, we reported the reproduction process from the excavation to the exhibition on the excavated traditional costumes of Milchanggun's *Jobok*

The purpose of a replication of relics is to record the relics experiencing the change resulted from the inevitable degeneration over time as organic cultural assets together with the substitution exhibition of relics and academic researches and so on. Accordingly, the above two methods are to be preceded by a deep and through research and study on the relics of

replication.

This study on the relics having an important cultural property value presents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assets of traditional costume through the two replication processes and results and a new pattern of exhibition.

## 1. 서론

**유물의 보존(conservation)**은 그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간접적인 보존과 직접적인 보존 그리고 대안적 보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인 보존의 방법은 전시장이나 보관 장소의 온습도, 조명, 생물학적 관리 등의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입의 정도가 가장 낮다. 직접적인 보존법은 오염제거를 위한 세척과 훼손된 부위를 지지물이나 보강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등의 수복과 복원적 행위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대안적 보존법이란 복제품을 이용한 전시 등으로 유물의 사회적 효용가치의 실현과 유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일컫는다. 이 보존이란 용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복원, 복제, 재현 등의 것이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개념상 보존의 하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 중 **복원(restoration)**은 유물을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sup>1)</sup>하고 있어 위의 직접적 보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작업에서는 그 용어의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밝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복식 유물은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실용품으로 제작 당시의 형태와 사용 중 필요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복원이라는 과정은 하나밖에 없는 유물을 다루는 일이므로 깊은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복제(replication)**는 본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또는 예술작품 따위를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일을 나타낸다. 대안적 보존의 방법으로서 복제는 현재 상태의 유물이 제작되어 사용될 당시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없듯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물의 현재 상태의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물로는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착용이나 사용 등의

---

1) 김겸, *서양에서의 유물복제의 의미와 현황*, 문화재의 또 다른 보존-복제와 모사, 단호문화연구 제7호, p242,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3.

과정을 통해 유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유물의 전시로 인한 변색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물은 최대한 안정화 시켜 보관하고 복제품을 대체 전시하여 유물의 보존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특히 복식 유물과 같이 그 구성재질이 유기물과 같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은 복제품의 제작이 보존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제의 목적에 따라 대상유물의 시점이 달라진다. 복제는 유물의 존재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복제와 현상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복원복제**란 학술적인 측면에서 유물이 제작된 당시의 형태와 색으로 고증해 본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복제**란 원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고 변화된 상태 즉 현재 유물의 상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으로 충해에 의한 결손부분과 산화에 의한 갈변현상, 얼룩진 부분까지도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원유물의 구성 재질, 색상, 손상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 분석한 후에 원 유물에 사용된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sup>2)</sup>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전시 등을 통한 사회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제품의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실제 출토된 복식 유물을 대상으로 복제품의 필요에 따른 복제 방법을 결정한다. 둘째, 복제 목적에 따른 두 가지의 복제방법 즉, 현상복제와 복원복제의 과정을 실제 유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물의 복제는 유물의 대체전시와 함께 유기물 문화재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필연적인 퇴화와 학술적 연구 조사 등으로 인한 변화를 겪는 유물에 대한 기록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복제 대상 유물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적·현상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연구는 두 가지 복제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복식 문화재의 보존과 전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대상유물 및 보존처리

---

2) 박지선, *한국 서화유물 모사의 역사와 현황*, 문화재의 또 다른 보존-복제와 모사, 단호문화연구 제7호, p158,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3.

본 연구의 대상 유물은 1999년 12월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출토된 전주이씨 密昌君(1677-1746)의 분묘이장 중에 발굴된 유물 중 補作衣로 사용된 朝服일 습 중 일부인 衣와 裳이다.<sup>3)</sup> 세척 방법의 결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로 안춘순<sup>4)</sup>은 본 조복 유물을 대상으로 각각 클로로포름과 증류수를 이용한 추출 후 비섬유질의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증류수가 클로로포름 단계보다 2 배 이상의 섬유 외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 2.2 복제의 과정

복제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복제의 목적과 그 효용 등을 고려하여 복제의 방법을 결정한다. 대체전시 등의 목적을 가진 현상복제인가 아니면 연구와 고증 등의 목적을 가진 복원복제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유물 기초 조사와 직물의 재현

본 조복에 사용된 직물은 모두 5가지로 이 중 조복의 전체를 구성하는 직물은 無紋紗이다. 이것은 2경 꼬임 사조직으로만 제작된 무늬가 없는 사직물로서 素紗, 銀條紗 등으로 불리며<sup>5)</sup> 현재 직조되어 상용되지 않고 있어 복제를 위해 유물에 근거하여 수제로 제작하였다. 유물 구성 직물의 질감과 새로 직조한 직물의 생경한 시각적인 차이 등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 2) 색상의 결정과 염색

현상복제를 위한 직물의 색상은 출토품인 유물의 현재 색상과 같은 갈변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을 실시하였다.

복원복제를 위해서 우선 조복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색상을 결정하였

---

3) 박성실,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소고, 한국복식 제22호, pp.87-88. 2004.

4) 안춘순, 마포 밀창군 표 출토복식유물의 섬유외 물질의 추출분석, 복식문화연구 제 11권 6호, pp.902-912, 2003.

5) 심연옥, 한국 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180, 2002.

다. 조복의 衣 와 裳의 중심적인 색상은 문헌에 따라 赤羅衣(국조오례의, 대한 예전), 赤綃衣(경국대전), 紅綃衣(경모궁의궤), 다홍생수갑사(의화군 발기)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sup> 앞서 제시한 밀창군의 조복 착장상태의 초상화와 안춘순의 연구에서 GC-MS분석결과 가장 높은 검출량을 보인 demethyl phthalate가 선행연구에서 얻어진 꼭두서니의 변질생성물 일 것으로 연구 조사 하여 붉은 정도와 색감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3) 복식 제작 및 후처리

본 직물은 조직이 매우 성글고 얇아 침선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조복의 구성적 특징과 전통 복식 침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전통 기술의 보존과 재현을 위해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상 복제된 조복은 관람객이나 관찰자로 하여금 복제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채색이나 그 밖의 후처리를 실시하였는데 현상복제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복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직물과 채색의 작업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3. 결론

본 연구는 복식유물의 안전한 보존과 유물의 사회 교육적 가치의 발현, 퇴화하는 유물의 기록, 그리고 전통 기술의 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복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제 제작해 제안하였다.

위의 두 복제의 방법 즉 복원복제와 현상복제는 모두 일정한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 될 때 오히려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대하는 문화재의 보존과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음은 유물의 복제 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다음의 몇 가지를 추출하였다.

### 1. 철저한 고증의 원칙

---

6) 박성실,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관찰, 한국복식 22, p98. 2004.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은 고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증은 유물, 문헌기록, 그림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증거(evidence)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sup>7)</sup> 유추나 추정에 의한 시행은 현재 뿐 아니라 후손에게 유물에 대한 잘못된 기록의 전달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해야한다.

2. 복제 목적의 확인을 통해 이에 맞는 물리적, 구성적 상태의 확인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3. 충분한 시간과 보존성이 높은 재료 확보하여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여 예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기능적 측면에서의 완벽한 복제가 되도록 한다.

현 시기의 복제란 연구, 감상, 기록의 과정으로서 과거의 조약하고 무근거한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존과 복원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재의 복원과 과학적 고증, 전문인의 양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원유물의 보존처리와 함께 병행될 때에 가능하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7) 김봉건, *불국사 복원에 관한 고찰*, 사찰조경연구 7, pp1-16, 1999.